

(성경칼럼 요한복음 열두번째 이야기 : 정말 부활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1 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 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다. 마르다와 그의 동생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11:3,5)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 (5:25-29; 6:40, 54; 8:51; 11:25-26) 이것을 의심할 수 있을까? 문제는 의심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친 확신에 있다. 모든 종교에서 죽음 이후의 문제는 그 종교를 표현한다. 그럼 기독교는 어떨까? 부활에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11 장에서 내가 관심이 간 곳은 24 절 말씀이다. 여기서 시작해 보자!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활’ 에 대한 가르침을 특별히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마지막 날’ 에 부활이 있을 것을 알았을까? (11:24) 필자의 추측으로는 마르다는 유대인으로서 아마도 ‘바리새인’ 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당시 유대인 제사장의 귀족계급인 ‘사두개인’ 들과 달리 율법 학자인 바리새인은 부활과 영과 천사를 믿었다. (행전 23:8) 사두개인은 구약의 ‘모세 오경’만 인정했지만 그래서 예수님과 ‘부활논쟁’ 이 있었을 때 고대 히브리인들의 전통에 근거해서 어떤 남자가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죽었을때 죽은 사람의 동생이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갈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것 (창 38:8) 에 대한 질문을 일곱번이나 부풀려서 했다. (막 12:18-27) 반면에 바리새인은 다니엘서와 같은 구약 예언서를 통해서 미래에 부활이 있을 것을 믿었다. (다니엘 12:2) 어찌보면 바리새인 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제대로된 신앙을 가졌지만 문제는 그 신앙대로 살지 못했다. ‘사두개인’ 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해서 오늘날 부활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앙과 같다고 오해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부활을 부인 한 것은 죽은자가 다시 살아 날 것이란 신앙이 오히려 사람들을 대담한 신앙으로 몰아가 죽음을 각오한 극단적 행동들을

할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두개인들은 당대에 정치적 권력자들이었다. 유대인들의 ‘극단적 신앙’ 이 ‘정치’ 와 손을 잡았을때 발생할 무모함을 두려워 했다.

오늘날 모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자살테러’ 와 같은 무모한 행동의 배경이 죽음이후 세계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고 ‘신을 위한 거룩한 행동’ 으로 간주되는 것과도 같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기독교 극단주의자들의 과감한 행동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이 잘못 이해된 결과들이다. 그렇다면 ‘부활’ 은 어떤가? 예수님께서서 고대 율법을 이용해 일곱번 결혼한 여인이 부활후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했을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막 12:25) 하셨다고 해서 사람이 죽은 후에 하늘에 가서 ‘천사’들 처럼 영적인 존재로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어떨까?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까? (물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신 부활은 결혼을 빗대어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 때에는 자식으로 대를 이어갈 필요가 없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라는 뜻이지 죽음 이후에 ‘천사’ 처럼 영적인 존재로 살아 간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께서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 내신 이유가 분명하게 보여 주듯이 미래의 어느 시점의 부활 때에는 사람들의 육체가 무덤에서 나와 새롭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사람이 죽음 이후에 어디에 있는가? 천사처럼 되는가? 는 부활의 주제가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 보다도 부활 후에 어디에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아주 이상하지 않은가? 왜 그럴까?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부활을 이해하려는 갈망 때문에 그렇다.

사도요한은 죽은 ‘나사로’ 의 이야기 시작부터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이 ‘나사로’ 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다. (11:4) 이것이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어야 하

는 이유요 변할수 없는 부활에 대한 진리다. 지나치게 종말론적 신앙에 빠져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현 시대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적 그리스도’의 배후 조정예의한 것으로만 인식하고 세상을 무시하고 무모한 행동을 일삼는 기독교 극단주의자들이 사 실상 모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무모한 행동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

부활 신앙은 신자들을 겸손하게 한다. 부활 신앙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죽음을 소중히 여긴다. 참부활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닫는다. 그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죽은 내 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일어나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걸어 나올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은 죽음 이후에 천사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강도에 계 약속하신 ‘낙원’이라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며 그 어떤 곳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신자들은 반드시 새롭게 변화된 육신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것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말하려는 ‘부활’의 의미다. 그러니 너무 내가 부활 할것이라는 확신에 넘쳐 부활이 나를 위한 영광된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